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자리 만들기*

이 재 봉**

차 례

- | | |
|---------------------------|-------------------------------------|
| 1. 재일조선인 문학의 해방직후 | 4. 번역하/되는 존재와 재일조선인 문학의 세계성 |
| 2.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 | |
| 3. 개입의 방식과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문학 | 4-1. 번역되는 조선 |
| 3-1. 해방과 패전의 간극 | 4-2. 번역하/되는 존재로서의 재일조선인과 그 상호문학적 과정 |
| 3-2. 개입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 5. 재일조선인 문학과 세계성 |

국문초록

재일조선인 문학은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근대 국민국가적 욕망에서 벗어나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바라볼 때 그 독특한 위치성이 밝혀질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1945년 조선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 아래서 재일조선인 문학이 어떤 위치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선과 일본에 개입한다. 따라서 재일조선인 문학 역시 조선과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교수국외장기파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일본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었다. 『민주조선』의 필자가 재일조선인, 일본인, 본국의 조선인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 등에서 이런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조선과 일본에 동시에 개입해야 하는 이 독특한 위치성은 재일조선인들이 조선을 적극적으로 번역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재일조선문학회’가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나 조선을 배경으로 삼은 문학작품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라도 발화 위치와 문맥에 따라 번역의 의미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조선은 여전히 식민지적 모순에 가득 찬 공간으로 번역된다. 그래야만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 공간에서 일본인들과 공동투쟁 또는 공생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재일조선인은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민주조선』의 창간 목적 중의 하나가 조선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일본의 시선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는 점은 여기서 기인한다. 조선과 일본에 끊임 없이 개입하고 번역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번역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재일조선인 문학은 바로 이 때문에 이미 세계성을 띠게 되고 그들의 문학은 상호문학적 과정이라는 특성의 세계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주제어 : 재일조선인 문학, 디아스포라, 개입, 번역, 세계성, 상호문학적 과정, 조선어, 일본어, 『민주조선』

1. 재일조선인 문학의 해방직후

우선 재일조선인 문학의 기점에 관한 논의들부터 살펴보자. 기점 또는 기원을 탐구하는 논의가 지니고 있는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은 그 기점에 대한 논의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주지하다시피 재일조선인 문학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해방 이전 식민지 시대라는 관점과 해방 이후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전부터 재일조선인문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견해이다. 하야시 고지, 이한창, 다케다 세이지, 임전혜 등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하야시 고지(林浩治)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조선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보면 부유한 계급의 사제(師弟)들이 왕성하게 일본 유학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 받은 ‘근대문화’의 영향을 조선에 보급하려 하고 있었다. 조선 근대문학 탄생의 아버지 또는 조선의 톨스토이라고도 불리는 작가 이광수도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는데, 그는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17세에 이미 일본어로 습작을 남기고 있다. 일본 근대문학과 조선 근대문학이 착종된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면서 후에 ‘재일조선인 문학’이라 불리게 되는 일련의 작품군의 존재를 말하려면 일본 근대문학의 성립기라고 일컬어지는 1900년대 후반에서부터 파헤쳐야만 한다.¹⁾

물론 하야시 고지는 이광수 문학을 재일조선인 문학이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일본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조선인의 문학은 모두 재일조선인 문학이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위의 인용에서 1909년 『백금학보』에 실린 이광수의 작품 <사랑인가>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하야시 고지는 1915년의 정연규, 1920년대의 프로문학자 김희명, 1930년대의 장혁주와 그 이후 김사랑 등을 재일조선인문학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거의 같은 입장에서 임전혜는 1880년대까지 그 역사를 거슬러 잡으며 이수정, 유길준 등 개화기의 인물부터, 주요한, 김동인, 김희명, 이복만, 김용제 등 대한제국 시기의 유학생과 프로레타리아 문학자 등 식민지 시기 일

1) 하야시 고지(林浩治),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 新幹社, 1991, 17쪽.

본에 살면서 일본어로 문학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전사에 포함시키고 있다.²⁾ 이와 같은 논의를 이한창은 그대로 이어 받는다. 그는 ‘재일교포 문학’을 논하면서 ①초창기(1881~1920년대 초반), ②저항과 전향 문학기(1920년대~1945), ③민족 현실 문학기(1945~1960년 중반), ④사회 고발 문학기(1960년대 후반~1970년대 말), ⑤주체성 탐색 문학기(1980년대~현재)³⁾로 그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런 태도는 근대 이후 일본에서 쓰여진 작품을 모두 재일조선인 문학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일종의 속지주의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장은 이미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당장 재일조선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경에서 발간한 『학지광』 등의 잡지에 실린 작품들은 재일조선인 문학인가? 실제로 해야지 고지는 이광수나 최남선, 전영택, 김동인 등의 이름과 『학지광』, 『창조』 등의 잡지를 거론하고 있고 임전혜 역시 마찬가지다. 재일조선인 문학을 단순히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의 문학으로만 규정한다면, 한 연구자가 날카롭게 지적하듯 재일조선인 문학은 백제의 왕인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속지주의적

2) 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文學の歴史—1945まで』, 法政大學出版局, 1994. 이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여명기의 문학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이수정과 유길준, 그리고 한말 유학생들의 잡지인 『학지광』을 비롯하여, 『창조』와 『해외문학』 등의 잡지를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형성과 그 문학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카프, 윤덕조, 장혁주, 홍종우, 김사량 등을 다루고 있다.

3)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연구」, 『외국문학』, 열음사, 1994. 겨울, 80~99쪽.

4) 홍기삼은 이한창의 시기구분을 문제 삼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제 근구구 왕 때 아라타와케荒田別 등을 백제에 보내어 학자를 청했을 때 왕인은 『논어』 『천자문』 등을 가지고 문맹의 나라에 가까운 일본으로 떠난다. 그는 바로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일본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일에 봉사했던 것이다. 『고사기古事記』에는 와니시키和邇吉師,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와니王仁으로 남아 있는 이야기를 맨 먼저 시작할들 누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홍기삼, 「재일한국인문학론」,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숲, 2001, 14쪽.

태도를 확장시킬 경우 장혁주의 존재가 당장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해방 이전부터 철저한 친일의 길을 걸었고 해방 후에는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인으로 살아간 작가, 이후에는 영어로 창작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던 장혁주는 재일조선인 작가인가? 일본에서 살았고 일본어로 글쓰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혁주를 재일조선인 문학가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그렇다면 일본의 패전 이후 영어로 글쓰기를 주장했던 그의 태도는 또 다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더욱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논리로 파악할 때 재일조선인 문학 나아가 근대 이후의 한국문학은 식민성에 함몰되어버릴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대 문학자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했고 일본어에 능통했던 경험 등은 이와 같은 식민성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⁵⁾

이런 입장에서 이 글은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을 주목한다. 조선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현실 아래서 조선(한국)과 일본 틈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⁶⁾ 조선과 일본의 틈새라는 그 독특한 위치성, 이 때문에 재일조선인 문학은 끊임없이 조선과 일본에 개입해야 했고, 조선과 일본을 번역해야 했으며 거꾸로 그들 역시 반드시 번역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재일조선인과 그 문학이 지닌 이와 같은 위치성이야말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세계성’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5) 바로 이 점에서 재일조선인문학을 ‘디아스포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의 연구 경향은 대부분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듯 하지만 그래도 엄밀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졌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 점을 상세하게 따질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6) 송혜원은 재일조선인문학의 기점을 1945년 해방 이후부터로 잡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조선인 작가’의 조건과 해방 후 ‘재일조선인’ 작가의 조건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一瞥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7쪽.

2장에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근대적 관념으로 규정하려는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이 한국문학 또는 일본문학이라는 입장들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그 독특한 위치성을 놓쳐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3장과 4장에서는 개입과 번역이라는 키워드로 재일조선인 문학이 지닌 ‘세계성’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당시 대표적인 매체였던 『민주조선』⁷⁾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민주조선』은 해방직후인 1946년 4월에 창간되어 1950년 7월까지 모두 33호가 발간되었다. 당시의 어려운 물자 사정이나 검열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보기 드물게 오래 발간된 잡지였다.⁸⁾ 그리고 종합잡지로 기획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문학 관련 내용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민주조선』이야말로 해방직후 재일조선인의 여러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매체로 볼 수 있다는 점과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의 중요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 잡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7) 『民主朝鮮』에 대해서는 최근 몇몇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오미정, 「전후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수용-잡지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조나단 글레이드, 「미군정기 남한과 일본의 문학으로서의 탈식민화 1945~1948-『문학』과 『민주조선』의 두 사례, 『한국어문학연구』57, 한국어문연구학회, 2011, 이한정, 『민주조선(民主朝鮮)과 ‘재일문학’의 전개, 『일본학』3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이한창, 작품발표의 장르로서의 『민주조선』 연구, 『일본어문학』60, 한국일본어문학회, 2014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민주조선』은 여전히 많은 연구거리를 남기고 있고 더욱 정밀한 독해가 필요해 보인다.

8)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부분의 잡지들이 단명했다. 따라서 『민주조선』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0호인 1947년 5월호는 『문화조선』으로 제호가 바뀌었지만 11호인 1947년 6월호부터는 다시 『민주조선』으로 발간된다. 이 글에서는 『문화조선』도 포함하여 『민주조선』이라 통칭한다.

2.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

재일조선인 문학은 한국문학인가 일본문학인가, 아니면 일본어문학인가? 진부하긴 하지만 이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현재의 연구 경향에서 이 문제는 이미 극복된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과 조선에 끊임없이 개입하며 번역하고 번역될 수밖에 없는 양상을 짚어보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간략하게나마 따져 보고자 한다.

말할 것도 없이 재일조선인 문학을 하나의 국민국가의 문학으로 통합하려는 시도⁹⁾는 사실 근대적 욕망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재외 한인들의 문학을 “한국문학의 확장된 범주에 ‘한민족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를 치고” “해외 동포 문학인들의 문학적 성과들을 한국문학의 범주 안에 포함”¹⁰⁾시켜야 한다는 인식에는 근대의 국민국가적 욕망 또는 민족적 욕망이 가득 들어 차 있다. 해외 동포 또는 해외 교포라고 하는 용어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잠시 한국을 떠나 있을 뿐이고 그러므로 이들의 문학은 한국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사실 이들을 활용하여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겠다는 상업적 발상과 그리 큰 거리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한민족 문화권’이라는 큰 울타리로 묶어 버리면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이 한민족 문화권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또는 한국 민족문학이라는 틀로는 감당하기 버겁게

9) 물론 최근 국내의 연구자들은 이런 시각이 지닌 문제점을 대부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런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일본의 연구에 대한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비판을 통해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10) 김종희 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해외동포 문학-한민족 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머리말.

되어버리는 논리적 오류 또한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려는 태도나 ‘교포’ 또는 ‘동포’ 등의 용어로 개념화 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국가와 두 개의 언어 사이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김달수와 김석범 등 제1세대 재일조선인의 문학을 “민중적 민족주의”¹¹⁾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역시 개념의 혼란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민족적 욕망에서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더욱 정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의 논의, 그 중에서도 재일조선인 문학을 식민지 문학과 연결시키는 태도이다. 1937년에서 1940년까지의 문학을 논한 이타가키 나오코(板垣直子)는 식민지 문학을 “식민지 인간이 식민지를 그린 문학”이라 말하는데 가와무라 미나토는 이를 인용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한다.¹²⁾ 그러므로 식민지 문학은 ‘식민지 종주국의 문학’이며 그 ‘문화체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와무라 미나토는 그 대표적인 작가로 장혁주를 꼽는다. 장혁주는 ‘종주국의 언어로’, ‘종주국 사람들에게’, ‘식민지 민족의 비참하고 부당한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소설을 썼으며, 식민지가 붕괴되자 일본문학의 권역으로 포함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김사량은 ‘일본어로 썼음에도’ ‘조선 내의 동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민족문학의 씨앗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제3의 길을 택한 작가로 그는 김달수를 꼽는다. 김달수는 장혁주, 김사량과 모두 연결되어 있었지만, 장혁주처럼 일본문학에 귀속된 것도 아니고, 김사량처럼 북한으로 귀속되어 간 것도 아니며 많은 조선인들처럼 남한을 선택한 것도 아니다. 김달수는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과적으로 선택”했으며, 김달수에

11) 유숙자, 『재일한국인문학연구』, 월인, 2000, 13쪽 및 21~22쪽.

12)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學論』, 平凡社, 1999, 10쪽.

계는 “일본 속의 ‘조선사회’야말로 그에게 밀접한 근거지”였고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을 성립시키게 된다는 것이다.¹³⁾

얼핏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태도는 사실 국경에 따라 문학을 귀속시키려는 욕망과 그리 다르지 않다. 더욱이 식민지 문학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출발이라 한다면 이타가키 나오코가 “사변 하의 기간에 식민지 문학이 우리의 시야에 새롭게 들어왔다”¹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역시 특정한 시기 일본에 의해서 발견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식민성에 함몰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다음과 같은 서술로 이어진다.

(재일조선인 문학이-인용자) ‘조선민족문학임과 동시에 일본문학의 하나’(小田切秀雄)이라든가, ‘아시아 문학의 시점에서 본다’(川西政明) 등의 재일조선인 문학의 정의나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이념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인 견해는 아니다. 한국, 북조선 등 조선민족의 나라에 거의 수용되지 않고 있는 문학을 ‘조선민족문학’이라 칭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한 ‘일본문학’ 속의 “특수한 장르”라는 위치만 점하고 있는 문학을 아시아적 시점에서 다시 본다는 것의 유효성을 액면 그대로 긍정할 수는 없다. 재일조선인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언설은 오히려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 전후문학의 특수한 형태로서 성립했다는 사실적인 기원을 은폐해 버린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본 속의 조선인 민족조직인 조선총련 등의 조직으로부터 이탈한 문학자들이 ‘식민지(적) 문학’에도 ‘민족(적) 문학’에도 귀속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 낸, 말하자면 “망명정권적” 문학이고 이는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처럼 특정한 시대성이 각인된, 특수한 테마성에 한정된 문학인 것이다.¹⁵⁾(밑줄, 인용자)

이와 같은 인식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가와무라 미나토의 욕망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13) 위의 책, 14~16쪽.

14) 위의 책, 10쪽.

15) 위의 책, 17쪽.

그에게 재일조선인 문학이란 일본문학 속의 한 '특수한 장르'일 뿐이며, 일본 전후문학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가와무라 미나토에게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 전후문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하나는 이와 같은 ‘일본 근대문학’의 범형(範型)을 이념적 형태로 재체현하려는 것이고, 이는 그 주제성이나 문제성 그리고 수법에 있어서도 확실히 ‘순문학’적이어서 전후문학의 양질적 계승자”¹⁶⁾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 문학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한 문학자들이 만들어 낸 ‘망명정권적’인 것이라는 지적 역시 모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달수나 김석범, 김시중 등 중요한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조총련 등의 조직에서 이탈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전의 냉전체제적 이데올로기가 상당 부분 희석된 지금은 ‘망명정권적’ 성격은 크게 약화되어 버렸고 따라서 이런 인식으로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특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그리고 특정한 시대성과 테마성에 각인된 문학이라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일본’만을 특화하여 일본 전후라는 특정한 시대, 재일조선인이라는 특정한 테마에만 한정된 문학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다시 말해 ‘전후’라는 상황이 소멸된다면 재일조선인 문학 역시 소멸될 수밖에 없고 재일조선인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른다는 전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 재일조선인 문학은 이미 문학사 속으로 사라진 프로레타리아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처럼 오래지 않아 사라져 버릴 역사적 장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가와무라 미나토에게 재일조선인 문학은 송혜원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일본어로 쓰여진, ‘일본문학’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그것도 일본문학의 하위”¹⁷⁾ 장르일 뿐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일본의 ‘전후’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논

16) 위의 책, 24~25쪽.

17)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一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15쪽.

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후’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해방 직후와 현재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다시 말해 지금 일본에서 생산되는 작품을 전후문학이라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와무라 미나토의 이와 같은 인식은 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일조선인 사회는 과연 소멸되고 있는가? 사정은 다르지만 2~4세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담은 재일조선인 문학이 계속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문학 장르가 언젠가는 소멸될지도 모르는 역사적 장르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가와무라 미나토의 인식은 정확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이 생산한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을까?¹⁸⁾

바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의 ‘일본어문학’이라는 개념도 비판할 수 있다. 이소가이 지로는 “재일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쓴 작품은 ‘일본어문학’일지는 모르지만 ‘일본문학’은 아니”¹⁹⁾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사용하는 ‘일본어문학’이라는 개념은 사실 대단히 모호하다. ‘일본문학’이 아닌 ‘일본어문학’은 일본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학을 일컫는 개념으로 보인다. 이소가이 지로처럼 ‘일본어’에만 주목할 경우 식민지 시대 많은 문학작품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버린다. 또한 재일조선인이 사용하는 ‘일본어’는 일본인이 사용하는 ‘일본어’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런 특성을 ‘일본어문학’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송혜원은 “김사랑을 재일조선인 일본어 작가의 원점, 혹은 시원의 빛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저항성 때문”이라는 이소가이 지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18) 이 짧은 글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의 개념과 디아스포라 문학을 모두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19) 磯貝治良, 『始原 光-在日朝鮮人文學論』, 創樹社, 1979, 209~210쪽.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민지 출신의 저항자로서의 측면만을 확대해서 보려는 듯한 낡은 역사관이 아니다. 그보다도 일본 대 조선이라는 이항대립의 도입으로 재일조선인의 문학적 영위(營爲)가 일본이라는 “적”의 존재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범관계를 불러들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이는 일본문화의 영향을 벗어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문화 창출을 모색하는 과정이 간과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²⁰⁾

여기서 송혜원이 문제 삼는 것은 ‘저항성’을 강조할 경우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는 이항대립의 문제이다. 이 경우 언제나 일본은 ‘적’으로 상정되며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본문학과 대립되는 문학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일본인들에게 재일조선인과 그 문학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송혜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문화의 영향을 벗어나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순수한 재일조선인 문학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 문학이란 한국(조선)과 일본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²¹⁾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어문학’이란 개념은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정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물론 송혜원은 ‘일본어문학’이라는 개념이 최근 일본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²²⁾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일본에 존재하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이 개념은 다시 국가주의로 환원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와 같은 용어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문학’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물론 한국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작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도

20) 宋惠媛, 앞의 책, 13쪽.

21) 이에 대해서는 3,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22) 宋惠媛, 앞의 책, 13쪽.

그 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중국 조선족 작가가 한국어로 작품을 발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작품을 두고 ‘한국어문학’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른바 ‘영어문학, 프랑스어문학, 독일어문학’ 등의 개념도 성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에 한정해서 볼 때 ‘일본어문학’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조선어/한국어 문학은 배제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에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선어/한국어 작품이 드물었고 양적으로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조선어/한국어로 된 문학은 지금도 일본에서 꾸준히 창작되고 있다. 이 문학을 ‘일본어문학’은 포괄하지 못한다. ‘일본어문학’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조선어/한국어로 이루어지는 문학은 시야에서 아예 사라지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화운동의 일환이고 따라서 그들의 문학은 명백히 조선문학의 범주”²³⁾에만 속하는 지위로 밀려나 버린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문학을 다른 어떤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는 상당한 위험을 지닐 수밖에 없다. 김석범이 이미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 재일조선인 문학은 재일조선인 문학일 뿐이다. 김석범은 “개인의 매명(賣名)과 밥값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고 있다는 박종상의 거친 비판²⁴⁾에 답하면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재일’이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나온 ‘재일조선인의 문학’”²⁵⁾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듯 재일조선인 문학이란 재일조선인 문학일 뿐이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의 문학 활동은 한국문학이나 일본문학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나름의 독특한 위치성에서 독특한 논리를 지니고 이루어지는 디아스포라 문학일 뿐이다. 오카 마리에 따르

23)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在日朝鮮人文學とは何か」, 『靑丘』19, 1994. 春, 29쪽.

24) 여기서는 하리류우 이치로(針生一郎), 「その批判は正当か—金達壽, 金石範の近作をめぐって」, 『三千里』20, 1979. 11, 68쪽에서 재인용.

25) 金石範, 『〈民族虛無主義の所産〉にちいて』, 『三千里』20, 1979. 11, 87~88쪽.

면 ‘위치성’이란 “지금까지 아이덴티티의 문제에서 사고해 왔던 것을 공간적인 배치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함으로써, 자기동일성의 사고를 탈구”²⁶⁾시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문학이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논의될 때 지닐 수 있는 위험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칫하면 근대적이고 민족적인 욕망, 나아가서는 식민주의적 욕망과 결합되기 쉽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주로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재일조선인 문학을 조선과 일본 그 사이 혹은 경계라는 장소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독특한 위치성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요긴하고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이다.

3. 개입의 방식과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 문학

3-1. 해방과 패전의 간극

해방 혹은 패전이라는 상황은 재일조선인의 존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린다. 일본인들에게 ‘패전’이란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하는 일종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초래했다면 재일조선인에게 ‘해방’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절호의 기회였다.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이와 같은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대부분의 일본인은 체제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전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모르게 된 정신적 공백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재일조선인은 곧바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점이 다릅니다.²⁷⁾

26) 오카 마리,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177쪽.

27)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김인덕 옮김, 『해방 후 재일조선인운동(1945~1965)』,

체제에 함몰되었던 일본인들에게 ‘패전’이 정신적 공백 상태 말하자면 공황 상태로 불려 왔다면 재일조선인들에게 ‘해방’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 그렇지만 해방이 곧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재일조선인들은 놓인 상황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다. 비록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일본이라는 식민지宗主국에서 일본인들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김석범은 <허망한 꿈>이라는 소설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압도당해 있었다. 거기에는 같은 일본인으로서 깊은 슬픔에 함께 잠기고자 하는 집요한 유혹이 있었다.-중략-그 순간 나는 어찌된 셈인지, 눈구석에 흔들거리며 고여 있던 것이 흘러넘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주르르 뺨을 타고 내려와, 입술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뺨에 남은 눈물자국을 단념하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어두운 눈 속에서 뜨겁게 부풀어 오르고, 또다시 커다랗게 부풀어오른 눈물이 힘차게 눈꺼풀을 밀어 열고 흘러 떨어졌다. 이상한 일이었다. 머물 일이었다.-중략-그러자 그녀는 사람이 없는 옆자리에 보따리와 함께 뒷몸을 내던지고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으며 와야 하는 소리를 냈다. 둥근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보기가 괴로울 정도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가련하다고도 이상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은, 그녀가 나를 일본인으로 착각했고, 조선인인 내가 나도 모르게 떨어뜨린 눈물을 자신의 눈물과 동질의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낭패했다.²⁸⁾

이 소설에서 ‘나’는 해방을 조선인 병원에서 맞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은 후 “궁성(宮城)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본 군인의 집단 자살을 보고 싶어”²⁹⁾ 거리로 나와 전차를 탄다. 전차 안에는 ‘성전완수’, ‘무운장구’ 등의 글귀가 그대로 붙여져 있었고(물론 이 문구를 ‘나’는 “날개가 비틀

선인, 2014, 29쪽.

28) 김석범, <허망한 꿈>, 김석범 저, 김석희 옮김, 《까마귀의 죽음》, 소나무, 1988, 283~284쪽.

29) 위의 책, 281쪽.

려 떼어진 처참한 물골”로 파악한다) 허둥지둥 전차에 올라탄 낯선 일본인 여성과 마주앉게 된다. 그 여성을 비롯한 일본인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이렇게 조용히, 자기들의 생활을 단절하려” 하지 않았고 열차 안의 분위기는 ‘나’에게도 “그것을 강요”³⁰⁾한다. 그 속에서 ‘나’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춤추며 뛰어나온 우리 동포들”이 “서로 끌어안고, 흐느껴 울고, 기뻐 날뛰고, 춤추고, 쓴살같이 달리고”³¹⁾ 있을 조선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런데 그 일본인 여성은 ‘나’를 바라보며 같은 일본인으로서 깊은 슬픔에 잠기자는 눈빛을 보내며 별안간 눈물을 쏟아낸다. 이에 촉발된 ‘나’도 이유모를 눈물을 흘리며 낭패감에 빠져들게 된다.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온 몸을 들썩이며 우는 일본인 여성과 일본에서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³²⁾했던 ‘나’의 이유모를 눈물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일본인들이 느꼈던 참담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로 인해 낭패감을 느껴야만 했을까. 아마도 패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들의 생활을 단절하려 하지 않는 일본인 틈에서 ‘나’는 조선 해방의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전차 안에서 마주친 일본인 여성의 울음은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을 실감하는 첫 번째 구체적 계기였고 그래서 아마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나’가 궁성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일본 군인들의 집단 자살을 보기 위해 거리

30) 위의 책, 같은 곳.

31) 같은 책, 같은 곳.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1945년 8월 15일 서울을 비롯한 조선의 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32) 다음을 보자.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때까지는 결코 ‘만세!’를 외치지 않겠다. 이 일본에서는 절대로 만세를 부르지 않겠다. 만약 참을 수가 없게 되면, 혼자서 어딘가 산으로 올라가자. 아무도 없는 공기 맑은 산꼭대기에서 마음껏 오존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목이 쉬도록,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지쳐 쓰러질 때까지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것이다.” 김석범, 같은 책, 282쪽.

로 나섰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패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궁성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일본인 여성의 울음이 조선의 해방을 실감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인 여성과 함께 울어버렸다는 것, 그 울음이 그 일본인 여성에게는 같은 일본인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낭패감을 느꼈을 것이다.

사실 이 낭패감은 해방을 맞은 재일조선인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토록 고대하던 조선의 해방이지만 일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에서 마음 놓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수 없는 상황, 벽차오르는 감격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야만 하는 상황은 재일조선인에게 닥친 현실적인 느낌이지 않았을까? 바꿔 말하면 재일조선인에게 해방이란 벽찬 감격임과 동시에 식민지 종주국 일본에서, 일본인과의 틈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은 식민지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무라 히데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45년 8월 15일을 갈림길로 하여 재일조선인의 상태는 크게 변했던 것입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8·15까지는 예컨대 강제 연행되어 온 노동자에 대해 좋은 싫든 간에 탄광이면 탄광에서 강제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8·15를 전기로 긴박함은 다소 없어지고 문자 그대로 ‘해방’된 셈인데, 해방되었다는 것은 함께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보라는 식으로 일본 사회 속에 버려졌던 것입니다.³³⁾

버려진 재일조선인,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재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조직 역시 하루빨리 결성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5년 8월 15일 오사카에서 몇 사람이 모여 ‘일본거류고려인중앙협

33) 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책, 47쪽.

회' 결성을 제안한 것이나 1945년 9월 4일 도쿄에서 재일본조선인연맹 준비위원회를 창립하고 같은 해 10월 15~16일 재일본조선인연맹 중앙총본부 결성대회가 열린 것³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활동은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가장 격렬하게 투쟁해 왔고 운동에 힘입어 이론을 확실히 갖고 있었”던 좌파들을 중심³⁵⁾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문학 역시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결과가 만들어 낸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각과 그들이 느꼈던 문화적, 문학적 자각에서 해방 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내용을 규정한다. 윤건차의 지적처럼 재일조선인 문학은 그 출발에서부터 “피지배의 역사, 민족과 고국의 문제, 그리고 자이니치로 살아간다는 삶의 문제와 씨름할 운명을 부여” 받았고, 동시에 “일본·일본인에게 조선 조선인을 알리는 역할”³⁶⁾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2. 개입으로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당연하게도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문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에 남겨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재일조선인 문학 역시 만만찮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당시의 한 기록은

34)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천리, 2016, 107~108쪽 및 113~115쪽 참조.

35) 가지무라 히데키, 위의 책, 31쪽.

36)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355쪽.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8·15 직후의 문학운동은 협의적으로 볼 때, 문학이라는 명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과거 약간의 문학청년이(의미상-몇 안 되는 문학청년이) 혹은 지식분자가 민족을 되찾은 기쁨으로, 36년간 일제의 폭압에 신음해 온 잔류동포의 문맹타파운동에 횃불을 들고 나타났다. 이처럼 계몽운동이 객관정세에 비추어 반영구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 문학운동도 문학동인지 형식으로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³⁷⁾

‘문학’이라는 명사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당시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의 지식인 재일조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교육을 받지 못한 민중들을 계몽하는 일이었고 바로 여기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시작된다는 진술³⁸⁾이 가능해진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부터 민족교육이 먼저 시작”되었으며, “김달수(金達壽)씨가 쓰고 있듯이 여기저기서 이제까지 사용조차 금지되어 있던 조선어를 되찾아야” 했기 때문에 “옛날 서당의 글방 같은 작은 학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이런 흐름은 ‘재일본조선인연맹’이 탄생함으로써 “학교 설립이 계통적으로 전개”³⁹⁾된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전역에서 “1946년 현재, 초등 민족학교가 508개, 아동 수 60,000여 명, 중등학교 12개, 학생 수 3,000여명, 그리고 교육출판물은 100만부를 넘었다”는 회고⁴⁰⁾가 이를 뒷받침한다.

37) 『在日朝鮮文化年鑑』, 1948, 여기서는 서용철, 『在日朝鮮人文學의始動』, 『復刻』民主朝鮮』-GHQ時代の在日朝鮮誌』, 明石書店, 1993, 48쪽에서 재인용.

38) 다음을 보자. “다양한 사정으로 일본에 남았거나 아니면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은 대부분,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지 지배 아래서, 민족말살정책, 민족어 말살정책, 우민화 정책에 의해, 그리고 극도의 빈곤의 결과 배우지 못했고 그 결과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동포에게 문자를 가르치고 동포를 계몽했다. 이것이 재일조선인문학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용철, 위의 책, 49쪽.

39) 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책, 50~51쪽.

40) 姜在彦, 李哲, 李進熙 座談會, 『解放後十年の在日朝鮮人運動』, 『三千里』48, 1986,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정한 운동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재일조선인 문학이 계몽운동과 함께 시작되어야 했다면 그 계몽운동은 당연히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운동성은 재일조선인 사회 역시 새로운 조국의 건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 김천해 등 일본에서 사회주의자로 활약하면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석방되면서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조직인 ‘재일본조선인연맹’ 등 사회주의 성향의 조직 건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운동성은 재일조선인이 처한 위치 때문에 독특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재일조선인이란 존재가 해방과 함께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조나단 글레이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바야시 토모코의 글을 인용하면서 1945년 10월 15일 대다수 재일조선인의 지지를 받아 조직된 ‘재일본조선인연맹’이 “초기에 조련은 재일조선인의 귀국을 원조하고 조선의 생활 상황 및 신국 건설의 동향을 검토하면서 일본의 민주화에 참가”⁴¹⁾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서 그는 계속해서 고바야시 토모코를 인용한다.

1946년 2월에 ‘민주주의민족전선’(민선)이 결성되었는데 조련은 민선 결성의 당초부터 그의 하나의 산하 단체가 되어 민선과 연대해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적인 일본의 건설은 민선의 과제(일제잔재의 소탕)를 일본에서 실천하며 신조선이 또다시 일본에 의해 협박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들과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니란 것을 인식하였다.⁴²⁾

冬, 25쪽.(이 회고는 이철의 것이다.)

41) 조나단 글레이드, 『미군정기 남한과 일본의 문학으로서의 탈식민화 1945-1948』, 『한국어문학연구』57, 한국어문연구학회, 2011, 264쪽.

42) 위의 글, 264쪽.

‘재일본조선인연맹’을 당시의 대표적인 재일조선인 조직이었고 이들의 활동은 위에서 보듯 조선과 일본 모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에서 1946년 2월 결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산하 단체가 되어야 했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의 민주화에도 기여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주조선』 창간사에 다음과 같이 선언적으로 정리된다.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조선인은 역사적 현실을 어떠한 각도에서 파악하고 그 역사적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고자 하는가. -중략-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에 표명함과 동시에 과거 36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왜곡된 조선의 역사, 문화, 전통 등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바로잡고 지금부터 전개되려고 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건설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이 소책자를 통해 조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호의 제현들에게 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⁴³⁾

여기서 보듯 조선과 일본을 동시에 지향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방이란 역사적 시기를 맞아 재일조선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조선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조선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강호제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인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다. “1946년 이후 미국 점령군은 전체 차별 구조 속에서 재일조선인을 소수민족”으로 규정했고 “일본 공산당도 조련의 조직을 통해 재일조선인운동을 일본 속의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⁴⁴⁾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인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나가야 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조선과 일본에 개입해야 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양국의 틈새에 있었고 나아가서는 GHQ로 대변되는

43) 創刊の辭, 『民主朝鮮』創刊號, 1946. 4.

44) 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책, 54쪽.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놓여 있는 것이기도 했다. 해방직후의 재일조선인들 앞에 “생활권, 민주적 권리의 옹호,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독립,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 등의 과제가 놓여 있었다는 진술⁴⁵⁾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생활권’이나 ‘민주적 권리의 옹호’ 등이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이었다면,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독립’, ‘조국의 민주주의적 발전에 기여’ 등의 과제는 재일조선인이 조국의 상황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다시 말하면 재일조선인들은 의식/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조선과 일본에 개입해야만 존재했던 것이다. 해방 이후 발행되었던 여러 매체들이 『朝鮮民衆新聞』(1945. 10월 10일 창간), 『高麗文藝』(1945년 11월 17일 창간), 『朝鮮新聞』(1946년 3월 10일 창간), 『民主朝鮮』(1946년 4월 1일 창간), 『朝聯文化』(1946년 4월 5일 창간), 『解放新聞』(1946년 9월 1일 창간, 『朝鮮民衆新聞』의 개제), 『自由朝鮮』(1946년 창간, 창간 날짜는 불명), 『朝鮮文藝』(1947년 10월 창간), 『우리문학』(1948년 8월 1일)⁴⁶⁾ 등 ‘조선’이나 ‘우리’가 강조되어 있으면서도 대부분 일본의 독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개입은 당시 대표적인 잡지였던 『민주조선』의 필자 분포를

45)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29쪽.

46) 이상은 朴慶植, 위의 책, 479~481쪽 및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인문논총』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83~94쪽 등에서 발췌.

47) 김달수의 다음 회고에서 이런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다. 그는 애초 『民主朝鮮』의 제호를 『朝鮮人』으로 하고 싶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잡지명을 『朝鮮人』으로 하자고 생각한 것은, 말하자면 ‘조선인’을 한층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조선’이라는 것의 가치관이 전락(轉落), 상실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을 회복하지는 의식이 줄곧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도 무한정으로 「한국」이라 쓰지 않고 「조선」이라 쓰고 있는 이유는 그런 의미 때문인데, 그래서 잡지는 ‘조선인’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다.” 金達壽, 『雜誌『民主朝鮮』のころ』, 『三千里』48, 1986, 冬, 100쪽.

보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명이 분류하고 있는 『민주조선』의 국적별 필자 현황을 보자.⁴⁸⁾

(표2)집필자 분류

좌담회 포함한 연인원

| | 연인원수(%) | |
|---------|------------|--------------|
| 재일조선인 | 216인(53%강) | } 291인(71%강) |
| 본국의 조선인 | 75 (18%강) | |
| 일본인 | 103(25%강) | |
| 중국인 | 14 | |
| 러시아인 | 1 | |
| 합계 | 409인 | |

좌담회 제외한 연인원

| | 실제수(인) | 연인원(회)(%) | |
|---------|--------|-----------|---------------------------|
| 재일조선인 | 40 | 182(55%약) | } 85명(60%강) 257회(77%강) |
| 본국의 조선인 | 45 | 75(23%약) | |
| 일본인 | 54 | 70(21%강) | |
| 중국인 | 4 | 5 | |
| 러시아인 | 1 | 1 | |
| 합계 | | |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재일조선인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⁴⁹⁾ 그 뒤를 일본인과 본국의 조선인이 잇고 있다. 재일조선인 잡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일본인과 본국 조선인 필자의 수 역시 적지

48) 朴鐘鳴, 『『民主朝鮮』概觀』, 『復刻『民主朝鮮』GHQ時代の在日朝鮮人誌』, 明石書店, 1993, 9~10쪽.

49) 물론 여기에는 당시 필자 수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다른 필명으로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金達壽는 孫仁章, 朴泳泰, 金文洙, 白仁 등의 필명을 썼고, 元容德은 金哲, 林勳, 朴元俊은 北載禎 등의 필명을 썼다. (박종명, 위의 글, 11~12쪽.) 그리고 李殷直은 『朝鮮文藝』에 宋車影이라는 필명을 쓰기도 했다.(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 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 문제』, 『한국문학논총』42, 한국문학회, 2006, 372쪽.

않다는 것도 당연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연히 양쪽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재일조선인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면 본국의 조선인보다 일본인 필자의 수가 더 많은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물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공간이며 『민주조선』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일본에서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식을 익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당시 본국과의 연결이 쉽지 않았다는 현실적 조건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조선』 1947년 1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려 있다.

본지는 최근 본국의 논단이나 문단에 발표된 각 평론가의 논문이나 각 작가의 작품을 가능한 한 번역소개하고 싶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러한 글들을 입수하려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아무래도 조직적인 입수방법이 없어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께서 이것(잡지, 서적 등)을 입수한 한 분이 계시다면 꼭 빌리고 싶습니다.⁵⁰⁾

이처럼 본국과의 연결 고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당시의 사정으로서 는 많은 글들을 구해서 번역 소개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主朝鮮』 창간호에서부터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를 이은직의 번역으로 싣고⁵¹⁾고 임화, 이원조, 이태준, 김기림, 김사량, 김남천, 암함광, 안희남 등 의 작품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물들의 글들이 번역되어 실려 있다.⁵²⁾ 뿐만 아니라 잡지의 성격상 문학 작품이나 문학에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연극, 정치, 철학 등도 함께 실려 있어 비교적

50) 조선문화사 편집국, お願い, 『民主朝鮮』, 1947년 1월호, 53쪽.

51) 김태준의 「조선소설사」는 김달수가 일찍부터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달수는 『민주조선』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이은직이 번역한 『조선소설사』를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것”(김달수, 「雜誌 『民主朝鮮』のころ」, 『三千里』48, 1986年, 冬, 100쪽.)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52) 자세한 내용은 박중명, 앞의 글, 21~25쪽 참조.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일본인 필자는 尾形昭三, 松丸志摩三, 岩村三千夫, 鹿地亘, 小田切秀雄, 平野義太郎, 小原元, 松本正雄, 田中久介, 鈴木安藏 등이 2편 이상의 글을, 그 외 44명이 1편의 글을 『민주조선』에 싣고 있다.⁵³⁾ 이들은 주로 5호 이후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 김달수는 ‘일본인의 조선관을 바로 잡는다’는 것도 『민주조선』 발간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민주조선』과 같은 시기 『신일본문학』도 발간’되었고 자신은 “신일본문학회의 회원이기도 해서 거기서 관계를 맺었던 일본인들이 『민주조선』에 글을 써 주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⁵⁴⁾ 그러므로 문학자가 많은 것 역시 당연해 보인다. 이들 글의 내용은 조선문학 또는 조선과 관련된 글이 많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신조선 건설이라는 이상’에 부합할 경우 일본인과 조선인을 불문한다는 『민주조선』의 편집 방침⁵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실 제일조선인이 번역하/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더 넓게는 미군정이

53) 박종명, 위의 글, 26~28쪽.

54) 김달수, 雜誌 『民主朝鮮』의 ころ, 『三千里』48, 1986年, 冬, 101~102쪽.

55) 『민주조선』3(1946. 5)에는 懸賞論文募集이라는 광고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은 지금 역사의 엄청난 임무를 지고 전 세계의 이목을 받는 세계사의 일대전환기에 봉착했다. 여기서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신조선 건설의 이념을 세계에 표명함과 동시에 전제군국주의 일본의 야만적인 폭압으로 왜곡된 우리 조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그 진면목을 발휘하려는 것으로 그 제일보를 내딛었다. 이 중대한 임무를 담당하는 우리 잡지사에서는 신조선 건설의 이상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의 규정에 따라 폭넓게 논문을 모집하게 되었다.” 이에 이어지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일. 매수 400자 원고지 20매부터 30매까지, 일. 응모자격 조선인과 일본인을 불문함, 일. 입선과 상금 입선 1편 가작 1편을 선정함. 『민주조선』 9월호에 발표하며 입선은 일금 천원, 가작은 게재 된 경우에 약간의 원고료 지급, 일. 심사 본사 편집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심사 결정함, 일. 마감과 보낼 곳 7월 20일까지 도착할 것. 본사 편집부 현상논문계로 보낼 것. 일. 기타 원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음.”

라는 그 틈새가 재일조선인의 실존적 조건이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은 이처럼 조선과 일본에 개입해야만 했고 이는 사실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조선에 개입하고 일본에 개입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조선과 일본을 번역하고 아울러 조선과 일본에 번역되어야만 하는 것이 재일조선인의 본질적인 조건이었던 셈이다. 이것이 그들이 지닌 독특한 위치성이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세계성’이 특징지워진다.

4. 번역하/되는 존재와 재일조선인 문학의 세계성

4-1. 번역되는 조선

번역은 어떤 특정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느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로 이동하거나 옮겨지는 경우 번역 행위는 언제나 작동한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코스모폴리탄적 세계에서 번역은 더욱 빈번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현상이다. 마이클 크로닌은 그래서 “번역학 분야의 이전 실천과는 달리, 이제 번역의 역사를 민족국가의 영토적 경계 내의 문학 현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한 국가를 넘어선 디아스포라의 다양한 번역활동 또한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번역은 이제 “‘민족적’ 역사라기보다는 ‘초국가적 역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⁵⁶⁾ 그에게 번역의 문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논쟁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현상 중의 하나인 이주 문제의 중심에 놓여”⁵⁷⁾ 있다.

다중언어적 세계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동에는 언어와 문화의 변동이 함축되어 있다. 만약 단일언어주의가 인류의 전제조건이 결코 아

56) 마이클 크로닌, 김용규·황혜령 옮김, 『번역과 정체성』, 동인, 2010, 57쪽.

57) 위의 책, 101쪽.

니었다면, 단일언어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다는 믿음은 유지되기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민자들의 언어들이 단일언어적이고 단일체적인 민족국가의 단성적 믿음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자들이 처한 조건은 번역된 존재가 처한 조건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원천언어 및 원천 문화로부터 목표 언어 및 목표 문화로 나아감으로써 이주라는 물리적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해 말하고 쓰고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의미에서도 번역이 발생하게 된다. -중략- 따라서 번역은 한가한 이론적 사색의 문제나 현학자들의 쇠잔한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편협한 교실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번역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이며 긴급한 진지성의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 번역할 능력(자율적 실천)이나 번역될 능력(타율적 실천)은 진정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⁵⁸⁾

물론 마이클 크로닌은 특정한 시기나 국가를 가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는 세계적 이주의 문제를 ‘번역’이라는 개념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 번역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식민지 종주국에서 살아가는 피지배국 출신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번역’은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미 1923년 관동대진재 당시 조선인에 대한 광기에 가득 찬 혐오를 기억하고 있는 재일조선인들에게 번역하거나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위를 넘어 ‘진정 삶과 죽음의 문제’ 그 자체였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해방 직후에 결성된 ‘재일조선문학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재일조선문학회’에는 당시 대부분의 재일조선인 문인들이 가담하고 있었고 『민주조선』을 그들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民主朝鮮』 1947년 8월호의 「편집부에서」에는 다음과 같은 광고성 언급이 있다.

하나의 뉴스를 알려드린다. 일본에 있는 조선문학자들은 조선본국의 문학운동에 호응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재일본조선문학

58) 위의 책, 99~100쪽.

자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동회에서는 9월을 기해 조선신보사에서 월간 잡지 玄海」=조선어=를 발행하고 마찬가지로 동회 회원의 집필을 중심으로 한 「조선문예」=일본어=가 조선문예사에서 발행되게 되었다. 종합잡지 「민주조선」과 함께 애독을 바란다. 동회는 본지를 중심으로 모인 문학자들이 조직적으로 발전시킨 결과로 위 두 잡지는 본지의 자매지로 보아도 좋다.⁵⁹⁾

여기에서 『민주조선』에 참여하고 있는 문학자들이 대부분 가입해 있던 ‘재일본조선문학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 확인해 두자. 이는 『조선문예』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⁶⁰⁾ 물론 『민주조선』에서는 ‘재일본조선문학자회’라고 하고 있고 『조선문예』에서는 ‘조선문학자회’라고 하고 있어 명칭 사용에 다소 혼란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민주조선』 1948년 1월호 「편집부잡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난 1월 17일, 동경에서 「재일본조선문학회」가 결성되었다. 이 회의 전에도 이 란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일본조선문학자회」가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같은 단체를 흡수 합동한 것으로, 이것으로 일본에서 우리 조선인의 문학적 조직이 완료되었다.⁶¹⁾

이렇게 보면 『조선문예』에서는 ‘재일본조선문학자회’를 ‘조선문학자회’

59) 編輯部から, 『民主朝鮮』, 朝鮮文化社, 1947. 8. 65쪽.

60) “해방이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문학자회가 창립되어 『민주조선』을 비롯하여 기타 동포가 경연하는 신문지상에서 왕성한 문예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문예잡지 『현해』가 창간되었다고 한다. -중략- 지면은 대단히 좁지만 일반에게도 개방한다. 주저없는 투고를 바란다. 제제가 조선에 관한 것이라면 조선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지 집필은 주로 조선문학자회 회원이다.” 『編輯後記』, 『朝鮮文藝』 창간호, 조선문예사, 1947. 10. 41쪽.

61) 『編輯部雜記』, 『民主朝鮮』, 1948년 1월호, 조선문화사, 64쪽. 그런데 『민주조선』 1948년 1월호는 발행일이 1948년 1월 15일로 되어 있다. 아마도 발행일보다 며칠 늦게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로 약칭한 것으로 보인다. 송혜원 역시 “재일본문학자회는 결성에서 1년 후인 1948년 1월 17일 ‘본국 문학가동맹에 보조를 맞추고 해외에서 조국 민주주의 혁명에 대동단결하는 길로 대동단결하여 민주문학운동에 제일 보를 내디디기 위하여’ 재일조선문학회로 개칭”⁶²⁾했다고 말하고 있다. 송혜원은 이어서 “재일조선문학회는 재일본문학자회, 조련 산하에서 예술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던 예술가동맹, 강위성(姜冕星)<姜舜>, 김경식(金慶植), 정달현(鄭達鉉), 박희성(朴熙盛), 허남기(許南麒)가 편집동인이었던 백민사(白民社), 신인문학회, 청년문학회 등 난립되어 있던 여러 단체가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결성”⁶³⁾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1948년 1월 17일 결성된 ‘재일조선문학회’가 당시 대다수 문인들이 모인 대표적인 단체라는 점, 통합된 문단조직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송혜원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재일조선문학회’가 목표하고 있는 비는 강령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 강령은 1.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2.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3.국수주의의 배격, 4.민주주의 민족문학의 건설, 5.조선문학과 국제문학의 제휴, 6.문학의 대중화이다. 이 강령은 주지하다시피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과 대부분 겹친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은 1.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2.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3.국수주의의 배격, 4.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 5.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 제휴⁶⁴⁾ 등 다섯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두 단체의 강령은 1, 2, 3항과 5항은 그대로 일치하고 4항은 ‘민주주의 민족문학’과 ‘진보적 민족문학’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에는 없는 6항이 재일조선문학회의 강령에 새롭게

62)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一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128쪽.

63) 위의 책, 129쪽.

64)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편,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 회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222~223쪽.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은 물론 ‘재일조선문학회’가 1946년 서울에서 결성된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거의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이다.⁶⁵⁾ 이런 번역을 통해 ‘재일조선문학회’는 조선의 문학적 상황에 보조를 맞추고 동시에 거의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조선과 조선문학에의 개입의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문학이 조선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조선문학가동맹 강령의 번역을 통해 선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함의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곳으로 번역되면 일정한 굴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조선문학가동맹이 기본적으로 민족문학 운동을 지향했다면 재일조선문학회는 재일조선인 문학 운동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두 단체가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강령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함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맥락이 다르면 의미 역시 달

65) 이런 점에서 해방 직후 일본에서의 북한문학 소개를 탐구하고 있는 오미정의 논문(「전후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수용-잡지 『民主朝鮮』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은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 1948년 남북에서 각각의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의 지도적인 사회주의자는 특히 남쪽에서의 인민투쟁과의 제휴에 주목”했고 “박헌영이 지도하고 있던 조선공산당, 인민위원회, 그리고 남로당 등과의 연계에 항상 뜻을 두고” 있었으며,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는 시점에서는 확실치는 않으나 점차 공화국과 연계를 갖게”(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책, 43쪽)에서 보듯 재일조선인연맹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민주조선』 역시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주조선』이 관심을 가졌던 문학 역시 북한문학이 아닌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이었다. 실제로 오미정은 “재일본조선문학회의 기본강령은 **북한**의 조선문학가동맹과 동일”했으며 “이를 통해 이 조직이 **북한문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153쪽, 강조, 인용자) 있었다고 말한다. 조선문학가동맹이 북한에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언급은 기본적인 오류이며 따라서 논문의 기본적인 전제 역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문학가동맹과 재일조선문학회의 강령을 따져 읽을 필요가 있다.

우선 ‘문학의 대중화’라는 강령부터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으로는 채택되지 않았던 이것을 재일조선문학회가 강령으로 채택한 것은 아마도 대부분이 문맹이었던 재일조선인의 현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문학가동맹 역시 문학의 대중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문맹퇴치의 우선적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들에게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교화의 속성을 갖는 것이며 무엇보다 조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었다.⁶⁶⁾ 그렇지만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 온 무학자였던 재일조선인에게는 정치적 교화보다 우선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었다. 그들이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학의 독자층 역시 지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계몽운동과 함께 재일조선인문학이 시작되었다는 서용철의 발언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강령인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과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을 재일조선문학회는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이 두 강령이 지닌 의미는 임화의 발언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임화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과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에 대해 임화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파악한다. “朝鮮에 있어 半封建的 鬪爭은 日本帝國主義에 對한 鬪爭이 되지 아니할 수 없었고, 日本帝國主義에 對한 鬪爭은 또한 언제나 內部에 있어 封建殘滓에 對한 鬪爭과 連結되지 아니할 수 없”⁶⁷⁾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문학가동맹에서 이 강령은 당시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던 친일과 척결의 문제와 직결된다. 전국문학자대회를 앞둔 1946년 2월 9일, 『해방일보』에 게재된 남로당 중앙위원회

66) 신형기, 앞의 책, 81쪽.

67) 임화,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편,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 회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29쪽.

의 「조선 민족문화 건설의 노선」에서는 “민족의 해방, 국가의 완전 독립, 토지문제의 평민적 해결 및 인민대중에 널리 퍼져 있는 비근대적 요소의 일소는 민족문화 건설의 목표”⁶⁸⁾라고 분명하게 밝혀 놓고 있기도 하다. 해방된 조선에서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사람들의 처벌과 토지 개혁 등의 문제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강령이 재일조선문학회에 번역되면 일본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에 방점이 찍힌다. 조선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지 않으면 재일조선인의 자리는 그만큼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식민지 본국에서 친일파를 척결할 수 있는 현실적 권력을 지니지 못했고 일본이 지녔던 봉건적 잔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일본인과 함께 투쟁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윤건차는 이 당시 재일조선인에게서 황국신민의 잔재와의 투쟁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천황제를 비판한 작품이 의외로 적다고도 지적하고 있다.⁶⁹⁾ 재일조선인연맹이 결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협화회 등에 관계했던 사람들이 운동의 중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 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재일조선인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내용이었다. 실제로 1945년 8월 18일 결성되어 재일조선인연맹의 모체가 되는 ‘재류조선인대책위원회(在留朝鮮人對策委員會)’에는 “협화회(協和會)와 같이 전쟁 중에 동원 체제에 관련된 기관에 관계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권력주(權赫周)라는 이름으로 당시에는 알려지고 이후에 권일(權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을 비롯하여 “우(右)에서 좌(左)까지 소위 대일협력

68) 『해방일보』, 1946년 2월 9일. 여기서는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65쪽에서 재인용.

69)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361~362쪽 참조.

시기를 살아 온 모든 사람이 포함”⁷⁰⁾되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일조선인의 독특한 위치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세 번째 강령에서 이 같은 상황은 더욱 명료해진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경우 ‘국수주의’는 파시즘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문학자대회에서 특별보고를 행한 박치우는 「국수주의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라는 글을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를 언급하면서 국수주의를 강력하게 경계한다.⁷¹⁾ 반면 재일조선문학회에 번역된 국수주의의 배경은 그들 자신에게도 해당되지만 일본과 일본인을 향한 요구이기도 하다. 식민지 지배시기부터 엄청난 차별과 억압에 시달렸고 민족 교육 탄압 등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듯이 일본의 국수주의화는 재일조선인에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번역된 국수주의 배경은 일본과 일본인이라는 바깥을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묘하게 달라져 있는 네 번째 강령은 더욱 정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경우 ‘진보적 민족문학 건설’은 바로 남로당이 취하고 있던 부르주아 혁명단계와 관련된 것이었다. 임화는 조선문학가동맹 결성식이었던 전국문학자대회에서 “民族文學樹立運動이 階級文學運動으로 박된 것을 이 時期에 있어 文學的進歩와 民族解放의 情神이 階級文學의 形式으로밖에 表現될 수 없었기 때문”⁷²⁾이라며 민족문학 운동

70) 가지무라 히데키, 앞의 책, 27쪽.

71) 박치우는 국수주의와 파시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理智는 여계서는 絶對로 禁物이다. 單刀直入으로 感情에, 民族感情에 呼訴하고 마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常套手段이다. 모든 種類의 國粹主義가 자칫하면 파시즘으로 넘어가기 쉬운 理由의 하나가 여계 있다. 내 것이면 더퍼 놓고 사랑하며 더퍼 놓고 第一인 國粹主義는 理性의 介在를 不許하는 一種의 感傷主義임에 틀림없다.” 박치우, 국수주의의 파시즘화의 위기와 문학자의 임무, 『건설기의 조선문학』 앞의 책, 139쪽.

72) 임화, 「조선민족문학건설의 기본과제에 관한 일반보고」,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

이 부르주아 계급혁명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의 ‘민족문학’은 진보적 리얼리즘,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일조선문학회는 이 ‘진보적’이라는 수사를 ‘민주주의’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사회 속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등한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점에서 김달수가 모리가와 나오코(森川直子)라는 일본인 고등학생이 자신의 『현해탄』을 읽고 보내 온 편지에 답하는 편지글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리가와 나오코는 “무엇보다도 나는 이 책을 읽고 조선민족에 대한 견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조선민족이 받았던 고통,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조선민족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이해되는 느낌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달수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민족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⁷³⁾ 더욱이 당시에는 재일조선인연맹 역시 일본 공산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재일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의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문제는 표면화되기 쉽지 않은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수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다섯 번째 강령인 ‘조선문학과 국제문학의 제휴’도 마찬가지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경우 파시즘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김영건은 당시 세계 문화의 임무를 “一.帝國主義國家에게 占領되고 戰爭의 慘禍를 입었든 諸

행위원회 서기국 편,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 회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36쪽.

73) 이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민족은, 사람은 평등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전에(지금도 역시 조금 그렇습니다만) 나는 이 불평등 때문에 이 일본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본어를 무언가 다른 것에 소용되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들 민족의 평등 인간들 사이의 이해를 위하여 유용하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金達壽, 『玄海灘』について, あるサークルへの答, 『わが文學』, 筑摩書房, 1976, 40쪽.

地域의 復舊와 發展에 協力할 것, 二.아직 殘存해 있는 反動的 諸國家와 그 文化에 對한 鬪爭에 協力할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國際民主主義文化의 進歩와 平和를 爲하여 國際文化協調를 促進하자!”라는 슬로건을 제안한다.⁷⁴⁾ 그러면서 그는 “소비에트 러시아나 아메리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감연(敢然)코 손을 잡고 일어나 야수와 같은 이태리와 독일과 일본의 군국주의자, 국수주의자들에게 항쟁”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나라들의 문학과 문화를 배워서 “조선의 작가도 세계적 무대에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문학가동맹이 주장하는 ‘조선문학과 국제문학의 제휴’는 지속적인 반제 투쟁을 통한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일조선인의 농인 환경은 이미 그 자체가 조선보다는 국제적이었다. 그들은 미군이 통치하는 일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에서 조선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위치성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그들이 지닌 국제성이었던 셈이다.⁷⁵⁾

4-2. 번역하/되는 존재로서의 재일조선인과 그 상호문학적 과정

이처럼 재일조선인은 조선에 개입하고 조선을 번역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이들은 마찬가지로 번역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다. 다시 말해 이들은 조선과 일본을 번역하고 조선과 일본에 번역되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이 재일조선인의 독특한 위치성인 셈이다. 그러므로 앞에서처럼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번역하는 등의 행위는 번역함과 동시에 번역되어야 하는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달수를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재일조선인문학회 뿐만 아니라 ‘신일본문학회’에도 가담하여 일본인들과 함께 문학 활동을 전개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독자로

74) 김영건, 세계문학의 과거와 장래의 동향-세계대전 후의 정치적 대세는 조선문학자의 국제적 협력을 요망한다-. 『건설기의 조선문학』, 117쪽.

75)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호명하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의 작품에는 특징적인 경향이 드러난다. 그들 대부분이 일찍 일본으로 이주하여 젊은 시기를 일본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들이 문학적 공간을 조선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합지를 지향했음에도 세 번이나 소설특집호(8호, 14호, 23·24호)를 발간할 만큼 『민주조선』에는 많은 문학작품이 실려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조선의 번역된 작품을 포함하여 모두 43편의 소설이 실렸고 거의 매호에 시가 발표되었고 가끔 희곡도 발표되었다⁷⁶⁾고 한다.

창간호에서부터 10회에 걸쳐 연재된 김달수의 장편 『후예의 거리(後裔の街)』는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일조선인인 ‘창윤’이 경성에서 의식의 변화를 겪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몰락해 가는 양반가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연재 장편 『죽보』 역시 조선이 배경이다. 이외에도 많은 작품들에서 조선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조선’을 더욱 직접적으로 전경화 시킨 작품이 바로 허남기의 연작인 <조선풍물시>이다. 그는 『민주조선』 1948년 1월호에 「조선풍물시(1)」을 발표하는데 여기서는 ‘경주’를 그린다. 계속해서 그는 ‘부산’(「조선풍물시(2), 1948년 2월호), ‘대구’(「조선풍물시(3), 1948년 4월호), ‘부여’(「조선풍물시(4), 1948년 5월호), ‘광주’(「조선풍물시(5), 1948년 8월호), ‘목포항’(「조선풍물시(6), 1948년 9월호), ‘태백산맥’(「조선풍물시(7), 1948년 11월호) 등의 공간을 시로 형상화하며 1949년 6월에는 <속조선풍물시(1)>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을 전경화시킨다.⁷⁷⁾

그런데 1918년 당시의 경남 구포에서 태어난 허남기는 1939년 독일한

76) 이한정, 「『민주조선』과 ‘재일문학’의 전개」, 『일본학』39,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4, 190~194쪽. 그런데 여기에는 박찬모와 엄홍섭을 재일조선인으로 분류하는 오류도 보이고 있다.

77) 허남기는 나중에 이를 바탕으로 여러 편을 더하여 1949년 『조선겨울이야기』라는 시집으로 출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하상일,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시문학 연구-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6, 438~439쪽 참조.

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선(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직후라는 시기, 사실상 조선을 방문하기가 지극히 어려웠던 그 시절에 허남기는 왜 조선의 풍물을 이렇게 번역해야 했을까? 물론 허남기가 번역하고 있는 조선의 풍물에는 비판의식이 가득 차 있다. 조선 풍물 중 부산을 노래하는 내용에는 허남기 자신이 다녔던 부산제2상업학교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중 일부를 옮겨 보기로 한다.

웬일인지 눈물이 앞을 가려/웬일인지 눈물이 멀리 훑날려/처량한 울보 애송이 시인이여/일찍이 너희들⁷⁸⁾/이 교정에 세우자고 맹세한/저 시비(詩碑)는 어찌 되었나/지금 이 교정에/풀들 어지러이 무성하고/학교 건물의 기와는 황폐해지고/유리창은 모두 깨어져/학생들 창백하고 힘없어/1945년 8월 자유는 마땅히 회복되었어야 했지만/여전히 그 자유는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알 수 없고/또 본적도 없어/그 옛날/너희들이 이 교정에서 괴로워 한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고/그들 다만 한결같이/진정한 해방이/진정한 자유가 올 날을 기다린다/아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풍경이구나⁷⁹⁾

대부분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허남기가 번역하는 조선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낭만적인 고향이 아니다. 식민지 지배의 망령에서 신음하고 있거나 해방이 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식민지적 흔적이 가득한 채 여러 가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다. 거기다 시적 화자는 상당히 높은 어조로 말하고 있지만 표면에 드러난 존재는 ‘너희들’이라는 2인칭 대명사이다. 이는 허남기가 번역하고 있는 공간이 구체적인 현재적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구성된 과거의 공간임을 의미한다. 1인칭 화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공간,

78) ‘너희들’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문에 ‘鄉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문맥상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卿等(けいら)’의 오식으로 보아 이렇게 번역했다.

79) 許南麒, 朝鮮風物詩(その二), 釜山, 『民主朝鮮』, 1948년 2월호, 38쪽.

따라서 2인칭을 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경험의 추상성을 드러낸다. 이는 아마도 여러 가지 경로로 전해들은 조선의 상황을 일본의 상황과 연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이라는 공간이 여전히 식민성에 포획되어 있으며 일본 역시 패전 후의 혼란상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재일조선인은 ‘조선’을 이렇게 번역해야만 일본 내에서 양심적인 일본인과 공동 투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후 일본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민주적인 질서는 일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조선을 모순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번역해야 했고 이를 일본인에게 전달하여 일본 역시 다르지 않은 공간임을 확인시켜야만 재일조선인은 일본인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번역은 언제나 이중적이다. 그들이 번역하는 조선은 그러므로 재일조선인에게도 전달되어야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조선을 다시 번역해야 한다. 마이클 크로닌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이주해 온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떻게 사고하고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그 사회의 보다 완전하고 능동적으로 만드는 방식”⁸⁰⁾이라 설명한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번역은 조선과 일본이라는 두 나라를 적극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선어’나 ‘일본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식민지 시기를 겪고 이제 해방이라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재일조선인들이 조선어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 곳곳에 민족학교를 세우고 조선어를 교육한다. 물론 이는 미군정과 일본의 엄청난 탄압⁸¹⁾에 직면하지만 그들에게 조선어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따라서 문학 활동 역시 조선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된다. 『조선신보』 지상에

80) 마이클 크로닌, 김용규·황혜령 옮김, 『번역과 정체성』, 동인, 2010, 116쪽.

81) 한신교육투쟁이 대표적이다.

서 조선어와 일본어 창작을 둘러싼 어당(魚塘)과 김달수의 논쟁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어당은 “일본어 창작은 조선문학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김달수는 “일본어 창작으로서의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주장”⁸²⁾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조선문예』에서 반복되는데 어당은 여기서 “문학이 언어예술인 이상 그 민족의 문학은 그 민족어에 종속”되어야 하며 “조선어 없이 조선문학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조국의 민주주의 혁명과의 연결”⁸³⁾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김달수는 “노예적 환경 때문이건 무엇 때문이건 습득하고 있는 일본어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크게 유용하게” 쓰고자 하며 “적의 무기를 가지고서라도 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⁸⁴⁾는 점을 알고 있다고 강조한다. 해방된 현실에서 조선의 민족문학을 수립해야 하며 따라서 조선어로 창작해야 한다는 논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논리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어에 능통하지 못했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 때문에 일본어로도 조선적인 것을 표상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분명한 설득력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얼핏 보면 매우 대립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 두 논리는 사실 대립적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조건에서 특정한 언어가 일방적으로 특권을 지닐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는 조선 및 재일조선인의 번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논리가 승리하여 다른 논리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마이클 크로닌의 말을 다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언어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82) 서용철, 앞의 글, 49쪽.

83) 魚塘, 「日本語による朝鮮文學に就いて」, 『朝鮮文藝』, 朝鮮文藝社, 1948년 4월호, 11~12쪽.

84) 김달수, 「一つの可能性」, 『朝鮮文藝』, 朝鮮文藝社, 1948년 4월호, 16쪽. 이 논리는 이후 김석범, 김시중 등에게로 이어진다.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번역적 동화**(translational Assimilation)라고 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민자들은 자기 자신을 공동체의 지배 언어로 번역하고자 한다. 또 하나는 **번역적 적응**(translational accommodation)이라 불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번역은 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에 대한 제한적이거나 광범위한 습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민자들 자신의 기원적 언어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은 상호배제적이지 않다. 이민자들은 다양한 영역, 다양한 경우에 이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⁸⁵⁾(강조-원문)

마이클 크로닌이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의 경우 지배 언어와 자신의 기원적 언어는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며 상호배제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때로는 지배자의 언어로 때로는 기원의 언어로 재일조선인은 스스로를 표상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재일조선인은 주체가 되고, 재일조선인 문학은 조선(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이 궁극적으로 지닌 ‘세계성’ 혹은 ‘세계문학’적 성격이지 않을까?

물론 ‘세계성’,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은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피테에 의해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이 제기된 이후 최근에는 기존의 비교문학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카자노바는 “국제적 문학교류와 투쟁과 경쟁의 관계로 형성된 세계문학 공간의 역동적 과정에 주목”하고 있고 모레티는 “세계체제 내부의 수많은 접촉지대들(contact zones)”에 주목하면서 세계문학의 지도 그리기를 시도하고 있다.⁸⁶⁾ 이들의 작업은 대단히 혁신적이지만 “일정한 이념적 편향성 내지 경향성, 즉 서구중심주의 내지 프랑스 중심주

85) 마이클 크로닌, 앞의 책, 114쪽.

86) 김용규, 「아래로부터의 세계문학: 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을 넘어」, 『비평과 이론』35,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13~39쪽 참조. 김경연·김용규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문학 논의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의”⁸⁷⁾를 드러내기도 하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세계문학을 ‘상호문학적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풀이하는 두리선의 관점은 이 경우 매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김용규는 두리선의 세계문학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두리선의 세계문학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중간지대가 갖는 다층적 관계를 체계화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세계문학이 민족문학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세계문학이 서구적 형식과 지역적 제재 간의 타협이라는 식의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비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을 통합하는 상호문학적 과정(literary process)이라는 독특한 중간 단계를 강조한다. 그의 독특한 개념인 상호문학적 과정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복합적·다층적 관계를 지칭하고, 이 관계에서 중심이든 주변이든 어느 하나의 문학이 다른 문학들에 일방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민족문학이든 세계문학이든 정도의 차이일 뿐 모두 상호문학적 과정과 분리될 수 없다. 민족문학은 상호문학적 과정에 대한 분석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세계문학 또한 상호문학적 과정의 발전적·진보적 확장의 결과이다. 여기서 두리선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난다.⁸⁸⁾

이 설명은 기본적으로 민족문학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재일조선인 문학이 애초부터 갖고 있는 복합적·다층적 관계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재일조선인 문학이란 하나의 민족문학이 아니라 그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민족, 두 가지 이상의 국가와 이미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에는 불가피하게 원천문화나 목표문화 등의 개념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데, 재일조선인의 경우 그 원천문화가 이미 조선과 일본을 전제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복합성·다층성

87) 김용규, 「체계로서의 세계문학」, 『코기토』7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35쪽.

88) 위의 글, 236~237쪽.

을 띠고 있다. 따라서 목표문화와의 관계 역시 대단히 중층적이다. 그러므로 두리선의 상호문학적 개념에 재일조선인 문학을 대입시킬 경우 그 자체가 이미 상호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위 글 중 ‘민족문학’의 자리에 조선(한국)문학과 일본문학을 두고, 그 관계들을 고려하면서 때로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그 자리에 넣어 읽으면 재일조선인 문학이 지닌 상호문학적 과정, 나아가 그 세계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⁸⁹⁾ 재일조선인 문학은 이미 조선(한국)문학과 일본문학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 두 민족문학의 틈새에서 상호문학적 과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독특한 위치성이야말로 재일조선인 문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리이고 번역하고 번역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두리선의 설명처럼 재일조선인 문학은 일방적으로 조선(한국)문학이나 일본문학에서 일방적인 영향을 받거나 둘 중 하나에의 귀속을 지향하지 않는다.⁹⁰⁾ 조선과 일본 그리고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

89) 김용규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해 보자. “그(두리선-인용자)상호문학적 과정은 국민/민족문학에서 시작하면서도 그것을 넘어 세계문학으로 발전해 가는 중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두리선은 이 중간 단계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문학적 단계로 규정하면서 이를 상호문학적 공동체(interliterary communites)와 상호문학적 집중체(interliterary centrism)로 구분했다. 상호문학적 공동체는 국민/민족에 가까운 정치적, 행정적 단위들의 통합성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문학체계들이 공존하여 형성된 문학공동체(특정한 상호문학적 공동체)를 의미하거나, 종족성, 지리적 경계, 이데올로기, 종교 등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 문학공동체(표준적 상호문학적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상호문학적 집중체는 상호문학적 공동체보다 훨씬 큰, 즉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와 같은 지역 체계를 가리키거나 대규모의 통합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가리킨다.” 김용규, 위의 글, 239쪽.

90) 이런 점에서 송혜원의 다음과 같은 재일조선인 문학사 기술 원칙은 정당해 보인다. “일본어 작품과 조선어 작품을 동등하게 다룬다. 작가의 국적(조선적·한국적·일본국적 외), 순혈성-혼혈성, 성별을 불문한다. 식민지 시기 도일한 필자에 더하여 1945년 이후의 이동자도 포함한다. 일본 매체와 동시에 재일조선인이 발행하는 발표매체에도 주목한다. 협의의 문예작품만이 아니라 수기, 작문, 일기 등을 포함한 글쓰기를 폭넓게 다룬다.” 송혜원, 앞의 책, 37쪽.

에서 상호문화적 과정을 실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곳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이며 이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이 지닌 세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조선』의 발간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김달수의 다음과 같은 인식도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잡지는 확실히 조선인이 경영하고 조선인이 편집하는 잡지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선인만이 읽는, 조선인만의 잡지라고는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것은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잡지이다. 조선인만이 읽고 조선인만의 잡지라면 일본에서도 조선어 활자를 주조할 수 있는 오늘 무엇이 좋아서 일본어로 발행할 것인가. -중략-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이 잡지가 발행되는 이유와 목적은 정상적인 때를 맞아 과거에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받아들인 일본인이 정당한 인식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고, 양국 간의 다가올 장래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이 잡지는 조선인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일본의 지성으로부터도 조선은 어떠한가 나아가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지를 늘 말하고 있는 것이다.⁹¹⁾

5. 재일조선인 문학과 세계성

재일조선인 문학을 논하려고 할 때 조선의 해방 혹은 일본의 패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 시기에 재일조선인 문학의 전체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대략적인 지형도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당시 재일조선인의 대표적 매체였던 『민주조선』을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재일조선인 문학의 위치성을 밝혀 보고자 했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그 독특한 위치성만큼이나 여러 가지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우선 재일조선인문학을 특정한 국가의 문학으로 귀속시키려는 근대적 욕망으로 한국문학 혹은 일본문학의 외연이 확장되는

91) 編輯室から, 『民主朝鮮』, 1946, 12, 88쪽.

지점에 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많이 불식된 듯 보이지만 ‘해외 교포문학’ 혹은 한국 민족문학의 일부로 파악하려는 태도나 일본 문학의 특정한 장르로 규정하려는 태도는 그와 같은 욕망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렇지만 김석범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듯 재일조선인 문학은 재일조선인 문학일 뿐이다. 특히 조선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이라는 간극 속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중요한 특징들을 형성해 나간다. 조선인 해방 혹은 일본의 패전은 재일조선인의 존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고,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에서 끊임없이 조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애초부터 ‘피지배의 역사, 민족과 고국의 문제, 자이니치로 살아간다는 삶의 문제와 씨름할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의 재일조선인 문학은 조선과 일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민주조선』의 필자 분포가 재일조선인은 물론이고 일본인과 본국의 조선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에 모두 개입해야 하는 재일조선인의 위치성에서 말미암는다. 이 독특한 위치성은 재일조선인이 조선을 적극적으로 번역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민주조선』의 주요한 인물들이 대부분 포함된 ‘재일조선문학회가 서울의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발화의 위치와 문맥에 따라 번역은 굴절될 수밖에 없고 조선은 여전히 식민지적 모순에 가득찬 공간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래야만 재일조선인은 일본이라는 식민지 종주국 공간에서 일본인과 공동투쟁 혹은 공생의 명분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은 또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존재이기도 했다. 『민주조선』의 창간 목적 중의 하나가 조선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일본의 시선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는 점은 여기서 기인한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어와 일본어, 기원의 언어와 지배자의 언어로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표상한다. 조선과 일본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번역하는 존재임과 동시

에 번역되어야만 하는 존재였던 재일조선인 문학은 바로 이 때문에 이미 세계성을 띠게 되고 그들의 문학은 상호문학적 과정 속에서 존재하는 세계문학적 특징을 보여준다.

K C I

참고문헌

1. 자료

『민주조선』, 『조선문예』, 『삼천리』, 『청구』
조선문학가동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국 편, 『제1회 조선문학자대회 회
의록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

2. 참고논저

1) 국내서 및 번역서

-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김인덕 옮김, 『해방 후 제일조선인운동(1945
~1965)』, 선인, 2014.
- 김석범, <허망한 꿈>, 김석범 저, 김석희 옮김, 《까마귀의 죽음》, 소나
무, 1988.
- 김경연·김용규 엮음, 『세계문학의 가장자리에서』, 현암사, 2014.
- 김용규, 「아래로부터의 세계문학:카자노바의 『세계문학공화국』을 넘어」,
『비평과 이론』35, 한국비평이론학회, 2014. 5~45쪽.
- 김용규, 「체계로서의 세계문학」, 『코기토』79,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210~250쪽.
- 김종희 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해외동포 문학-한민족 문화권
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 나리타 유이치, 한일비교문화세미나 옮김, 『고향이라는 이야기』, 동국대
학교 출판부, 2007.
- 마이클 크로닌, 김용규·황혜령 옮김, 『번역과 정체성』, 동인, 2010.
- 미즈노 나오키·문경수, 한승동 옮김, 『재일조선인-역사, 그 너머의 역
사』, 삼천리, 2016.
-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사이』, 돌베개, 2006.

- 신형기, 『해방직후의 문학운동론』, 화다, 1988.
- 오미정, 「전후 일본의 북한문학 소개와 수용-잡지 『민주조선』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40, 우리어문학회, 2011. 145~167쪽.
- 오카 마리,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현암사, 2016.
- 유숙자, 『재일한국인문학연구』, 월인, 2000.
-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 이재봉, 「해방 직후 재일 한인 문단과 ‘일본어’ 창작 문제」, 『한국문학논총』42, 한국문학회, 2006. 359~389쪽.
- 이한정, 「『민주조선(民主朝鮮)과 ‘재일문학’의 전개」, 『일본학』39,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181~206쪽.
- 이한창, 「작품발표의 장르로서의 『민주조선』 연구」, 『일본어문학』60, 한국일본어문학회, 2014. 369~389쪽.
- 이한창, 「재일교포문학연구」, 『외국문학』, 열음사, 1994. 겨울. 78~101쪽.
- 조나단 클레이드, 「미군정기 남한과 일본의 문학으로서의 탈식민화 1945~1948-『문학』과 『민주조선』의 두 사례」, 『한국어문학회연구』57, 한국어문연구학회, 2011. 249~283쪽.
- 하상일,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시문학 연구-허남기의 시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2006. 427~451쪽.
-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1945~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4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2. 79~103쪽.
- 홍기삼, 「재일한국인문학론」, 홍기삼 편, 『재일한국인문학』, 숲, 2001.

2) 일본서

-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在日朝鮮人文學とは何か」, 『靑丘』19, 1994. 春. 26~33쪽.
-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生まれたらそこがふるさと-在日朝鮮人文學』

論』, 平凡社, 1999.

磯貝治良, 『始原 光-在日朝鮮人文學論』, 創樹社, 1979.

金達壽, 「雜誌『民主朝鮮』のころ」, 『三千里』48, 1986, 冬. 99~104쪽.

金達壽, 「『玄海灘』似ついで, あるサークルへの答」, 『わが文學』, 筑摩書房, 1976.

金石範, 「〈民族虛無主義の所産〉について」, 『三千里』20, 1979. 11. 78~89쪽.

朴慶植,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三一書房, 1989.

朴鐘鳴, 「『民主朝鮮』概観」, 『復刻『民主朝鮮』GHQ時代の在日朝鮮人誌』, 明石書店, 1993.

徐龍哲, 「在日朝鮮人文學の始動」, 『復刻『民主朝鮮』-GHQ時代の在日朝鮮誌』, 明石書店, 1993.

宋惠媛, 「『在日朝鮮人文學史』のために-聲なき聲のポリフォニー」, 岩波書店, 2014.

任展慧, 『日本における朝鮮人文學の歴史-1945まで』, 法政大學出版局, 1994.

林浩治, 『在日朝鮮人日本語文學論』, 新幹社, 1991.

針生一郎, 「その批判は正当か-金達壽, 金石範の近作をめぐって」, 『三千里』20, 1979. 11. 68~77쪽.

<Abstract>

Making the Position of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in the period of Post-Liberation

Lee, Jae-Bong

The unique positionality of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can be revealed when it is viewed as a diaspora literature, which gets out of the modern national desire of imputing to a certain nation. This paper, approached in this terms, intended to look into which positionality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tried to make under the historic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liberation and Japan defeat in 1945. In the circumstanc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international changes,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continuously intervened in Korea and Japan to establish their own status. Thus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also had an innate respect for Korea and Japan at once. It is possible to judge from the fact that the authors of 『Minju Chosun』 were composed of the Koreans in Japan, Japanese and inland Koreans etc. The unique positionality, intervening in Korea and Japan at once, is outed as behaviour that the Koreans in Japan translated Korea actively. That is why 'The Association of Choseon Literary Writers in Japan' translated the organizational statement of 'The Union of Chosun Literary Men' to the letter and there were many literary works with Korea setting. However it has been inevitable that the same expression differed in accordance with utterance places and contexts and Korea is still translated as a space filled with colonial

contradiction. Only then could the Koreans in Japan get justification for joint struggles or symbiosis with Japanese in space of Japan, the country from which colony originated. Besides, the Koreans in Japan were beings translated by Japanese positively. That contributes to the point that one of the purposes for 『Minju Chosun』 foundation was to correct distorted views on Korea and the Koreans in Japan.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was a translated being as well as a continuously intervening in Korea and Japan and translating being, and because of this, it has already taken on globality and their literatures have showed world literary character that is inter-literary process.

Key Words : the Korean-Japanese literature, diaspora, intervention, translation, worldliness, inter-literary process, Korean, Japanese, 『Minju Chosun』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